

서비스 부문에 대한 FDI 유입액 증가

작성자 : 이시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작성일 : 2013년 1월 28일

■ 최근 브라질의 서비스 부문 FDI 유입액이 큰 폭으로 증가함.

- 2011년 브라질의 FDI 유입액은 695억 달러로, 전년대비 32.2% 증가였는데, 이중 서비스 부문의 비중이 46%에 달함.
- 최근 브라질 정부의 과도한 개입 정책으로 인해 일부 산업에 대한 FDI 유입액 증가폭이 주춤하였음.
- 그러나 최근 국내 소비 증가폭이 큰 서비스 부문에서 기업 인수 합병 사례가 급격히 증가하였음.
 - 2012년 1월부터 10월까지의 통계를 살펴보면 200여건 이상의 기업 인수가 발생했는데, 이들의 공통점은 최근 고성장에 수익률이 높은 서비스 부문에 속해있다는 점임.

표 1. 브라질의 FDI 유입액 통계

(단위: 백만 달러, %)

	2010년	2011년	구성비	변화율
농·축산·광업	16,261	10,297	14.8	△36.7
공업	21,273	26,837	38.6	26.2
서비스업	14,702	31,988	46.0	117.6
통신	659	6,670	9.6	911.7
상업(자동차 제외)	2,619	5,701	8.2	117.6
전기·가스	1,165	3,341	4.8	186.8
금융서비스	1,852	3,184	4.6	71.9
보험·재보험·연금·건강보험	220	2,403	3.5	947.6
부동산	1,590	2,195	3.2	38.0
건설	664	1,164	1.7	75.4
인프라관련투자	209	785	1.1	275.6
합계	52,583	69,530	100	32.2

출처: 브라질 중앙은행(www.bcb.gov.br.)

■ 한편 서비스업 부문을 제외한 산업부문에 대한 FDI 현황은 다음과 같음.

- 기존에 국내 FDI 유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던 제조업은 높은 인건비¹⁾와 수출경쟁력 하락으로 인해 투자가 부진하였음.²⁾

1) 1996년에서 2009년까지 총 실질 인건비는 38% 상승한 것으로 조사됨.

- 전력산업 확장 계획에 따라 송전부문의 투자유입은 증가하였고, 배전 및 발전 부문 투자는 현재 저조한 상황임.
- 과도한 브라질 정부의 개입으로 인해 세계 메이저 기업들의 석유 및 가스부문 투자는 주춤한 상태임.
- 유료 도로 건설과 관련된 입찰에 많은 투자가 몰린 바 있으나, 정부의 이익 상한선을 낮추는 정책으로 인해 최근에는 투자자들의 관심이 줄어들음.

■ 최근 서비스 부문의 FDI 유입액 급증은 국내 수요 증가와 경기침체에 따른 기업 가치 하락에서 기인함.

- 최근 브라질의 높은 실질임금 상승률(연간 8% 이상)과 낮은 실업률(5.3%), 신용 거래의 확대에 의해 중산층이 확대되었으며(53%) 이로 인해 국내 소비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
- 따라서 이에 따른 장기 브라질 소비시장 성장에 대한 낙관적인 기대심리가 형성 되었다고 판단됨.
- 특히 국내에 외식문화가 발달하면서 주요 외국 레스토랑들의 브라질 진출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부동산 기반의 투자 역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프랑스의 Accor는 2015년까지 브라질 내 호텔 산업을 확장할 계획을 발표함.
 - 칠레의 슈퍼마켓 체인인 Cencosud는 브라질 내 투자를 확대하고 가까운 시일 내에 15개의 새로운 쇼핑몰을 열 것이라고 발표함.
 - 상파울루와 리오데자네이로와 같은 물가가 비싼 대도시 내에 신규 진출 기업들을 상대로 한 사무실 임대사업이 활성화됨.
- 최근 2년간 브라질 경제의 성장이 주춤하면서 기업들의 가치가 하락함에 따라 서비스업 부문의 기업 인수가 증가하였음.

■ 그러나 가계 부채 증가와 소비 심리 변화 가능성은 지속적인 FDI 규모 증가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 브라질 경제 내에서 정부가 차지하는 역할이 큰 만큼 정부 정책의 방향을 주시하고 투자를 결정을 할 필요가 있음.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조립 부문의 신규 투자규모는 정부의 혁신정책으로 인해 유일하게 증가세를 보였음.